

## 벨기에의 중세 도시들

김 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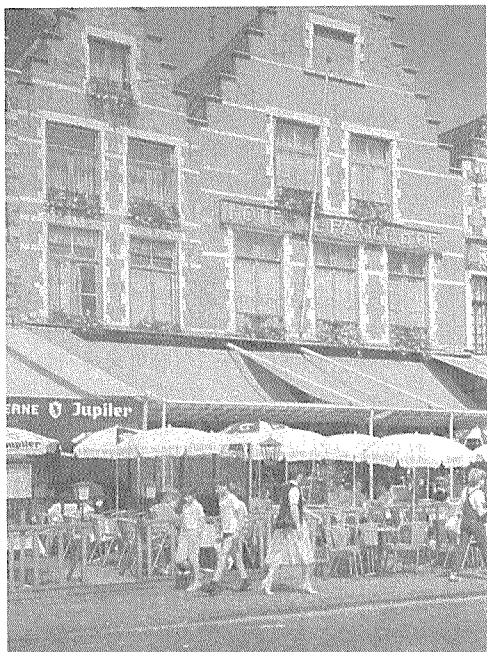
### 동화속의 도시 같이 예쁜 「겐트」

인간이 만든 도시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딜까. 어쩌면 화가나 동화작가들이 모델과 무대로 삼는 도시가 그런 도시일지 모르겠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작은 지방도시들은 모두 꿈과 환상의 도시다.

내가 겐트(Gent)를 찾은 것은 정말 우연이다. 브뤼셀에서 어디가 중앙역인가 찾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 급행열차는 겐트까지 왔다.

그날은 마침 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역전에서 바라다본 도시는 진짜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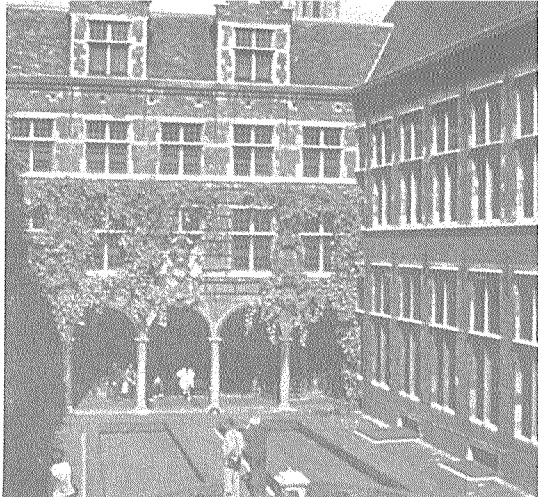


▲ 브루주 시청앞 광장·벨기에 특유의 고전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중세의 모습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의 도시였다. 어려서 동화책을 보고 꿈속에서 그려보던 그런 도시였다. 마력에 끌리듯 나는 눈속을 걸으며 도시 한복판으로 진입했다. 거리 양쪽의 집들은 무대장치를 위해 만든 그림처럼 보였다.

조금 걷다보니 폭이 좁은 강이 있고, 다리(聖미카엘橋)를 건너니 왼쪽에 성미카엘사원이 있었다. 1440년에 착공, 17세기에 완성되었다는 고딕식의 이 사원안에는 판 아이크의 걸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사원 정면으로 뚫린 길을 강변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물속에서 솟아오른 것 같은 육중한그라벤스텐城이 있다. 이 성의 성주 프란돌백작의 이름을 따 프란돌성(城)으



▲ 안트워프의 인쇄왕 크리스토파·푸랑탄의 집. 화가 루벤스도 이곳에서 그의 판화를 인쇄했다.

로도 불리운다.

941년에 세워졌다는 이 성은 사면이 강과 운하다. 시리아 십자군의 요새를 모방했다는 이 성은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옛날 사형집행에 쓰던 킬로틴과 고문도구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성앞 광장은 15~18세기 사형집행이 벌어지던 무서운 역사의 현장이다.

광을 따라 왼쪽으로 더 올라가면 생선시장이 있고, 민속박물관이 나타난다.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이 박물관에서 마리오네뜨 인형극이 벌어지는데 어린이들에게 대단한 인기다.

박물관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프란돌시대의 구시가가 펼쳐진다. 좁고 꼬불꼬불하게 뚫린 도로를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겐트의 중심지 시청광장에 이른다.

고딕식과 르네상스식의 혼합형 건축물인 시청사는 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시청건물의 북면(北面)은 벨기에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시청 옆에는 15세기 때 클로드홀(Cloth Hall)이 있고, 그 안에 예쁜 레스토랑이 있다. 또 광장주변에는 길드하우스, 종탑, 성 니콜라스교회 등이 있다.

겐트는 7세기 때 로마인에 의해 건립된 도시인데, 찰스5세 때는 네덜란드의 수도가 되기도 했고, 12세기 이후는 섬유업자들의 모임인 길드를 중심으로 산업도시로 탈바꿈, 또 레이에강을 따라 북해로 빠지는 무역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북의 플로렌스” 또는 “꽃의 도시”란 별명도 지니고 있는데, 서쪽 교외에 있는 겐트꽃시장은 새로운 명소다.

**브루주-도시 전체가 미술 박물관**

겐트에서 서쪽으로 약50킬로 더 가면 인구12만의 작은 도시 브루주가 있다. 브루주는 도시 전체가 “미술박물관”이다.

원래 11~13세기 때는 유럽서도 가장 번영을 누린 상항(商港)이었다. 북해와 연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결되는 수로(水路)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로가 14세기에 모래로 막혀 항구도시로서의 숨통이 끊겼다. “죽은 브루주”가 된 것이다.

몇백년간 발전도 변화도 없는 동결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덕택에 “완전한 모습의 중세도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지금은 거꾸로 보석보다 값진 도시가 된 것이다.

마르크트 광장은 이 도시의 심장부다. 광장 정면에는 높이 83m의 거대한 종각이 있다. 작은 도시에 이처럼 큰 종각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옛 번영시대의 상징인 셈이다. 366개의 계단을 밟고 정상에 오르면(걸어서 오르기가 아주 힘들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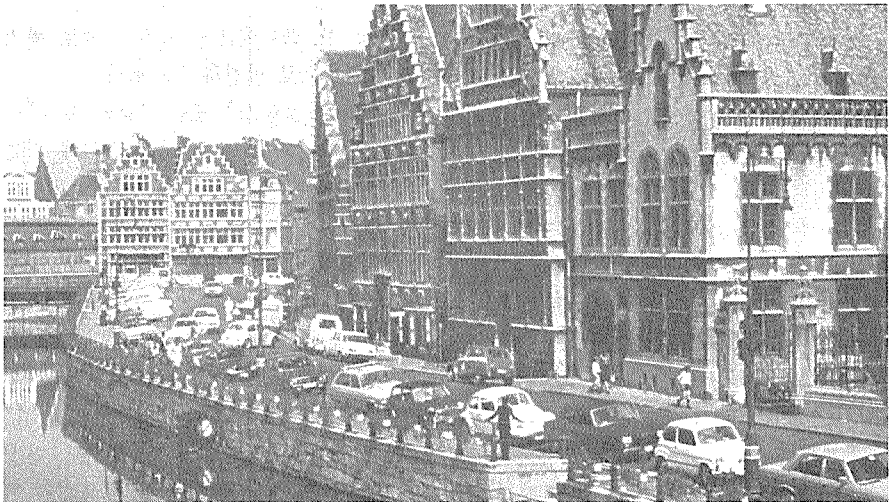
종각 앞에는 시청사, 주정부 청사가 있고, 길드하우스 등 장난감처럼 예쁜 중세시대 건축물들이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다. 이 광장풍경은 사진으로 너무 많이 보던 곳이라 첫눈에 알아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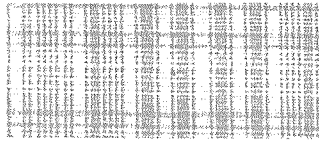
시청 뒤에는 바질릭성혈(聖血)교회와 있다. 12세기 때 영주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몇방울 가지고 와서 간직하고 있다는 교회다.

매년 5월에는 “성스러운 피의 퍼레이드”란 제례(祭禮)가 벌어진다. 검정색 돌 벽으로 쌓은 교회안에는 상하에 2개의 예배당이 있다.

노틀담성당은 브루주 최대의 교회당이다. 11~15세기에 걸쳐 건립된 이 성당에는 백대리석화(畵)인 미켈란젤로의 “성모 자상(聖母子像)”이 있다.

▼ 겐트의 강변도로 풍경 · 「꽃의 도시」답게 강변에 제라늄화분이 일렬로 놓여 있다.





1245년에 세워진 베긴회(會) 수도원, 성(聖)요하네병원, 해양박물관 등도 돋보이는 건축물들이다. 4각형으로 된 이상한 풍차도 있는데 시내에 모두 4개가 있다한다.

브루주에는 다리가 많다. 온도시가 운하로 엉켜있기 때문이다. 브루주를 가르켜 “북의 베니스”라고도 부른다.

시내구경을 시켜주는 보트가 이 운하를 누비고 다닌다. 약 30분이면 시내구경을 고루 할 수가 있다.

나폴레옹 운하를 따라 교외로 나가는 보트관광코스도 있다. 시내에서 7km쯤 북상하면 댐에 이르는데, 운하 양쪽에는 무성한 나무, 고성, 백조, 전원풍경들이 펼쳐져 한쪽의 그림같다. 화가 푸란돌이 브루주출신인데, 그의 그림에 이 운하 풍경이 자주 나온다.

시 남쪽에는 여인들의 호수 애호(愛湖)가 있다. 옛날엔 항구였던 곳이다.

### 루벤스의 고향, 앙트워프

앙트워프(Antwerp)는 브뤼셀의 북쪽에 있는 인구 50만의 큰 도시다.

이 도시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옛날 돌롱이란 거인(巨人)이 있었는데, 자기 성앞을 지나가는 배마다 통행료를 받았다. 만약 통행료를 안내면 팔을 잘라 버려 공포의 대상이 된 악인이다. 이 돌롱을 무찌른 용사가 로마의 “브라보”다. 브라보는 돌롱의 팔(Ant)을 잘라 강물에 던져(Werpen) 버렸다. 이 전설에 따라 앙트워프란

도시 이름이 지어졌다.

앙트워프는 화가 루벤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시내에는 그의 생가가 지금도 남아 있고 미술관, 교회, 가는 곳마다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성모대성당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가(降架)”는 그의 최고 걸작이다.

이 성당안에는 높이 123m나 되는 거대한 탑이 있는데, 14세기 때 230년 걸려 지은 건축물이다.

“플란다스의 개”로 알려진 명작의 무대도 이 성당 안이다. 충견 파도랏슈가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고 성당안에 들어간 네로 소년을 기다리던 곳이 성당 정면에 있는 우물가다. 성당 뒤에는 소년과 개가 묻힌 무덤이 있다.

앙트워프는 다이아몬드 도시로도 유명하다. 1만2천명의 다이아몬드 세공기술자가 있다 한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40%는 이곳에서 가공되고, 60%는 이곳에서 거래된다는 세계제일의 다이아몬드 도시다. 앙트워프의 다이아몬드 가공은 5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흔히 “앙트워프 컷”이란 말을 듣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 계에선 고품질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시내에는 다이아몬드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역사 공정 따위를 전시하고 해설도 해준다.

앙트워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는 강 바닥에 뚫린 보행자 터널(St. Annatunnel)이다. 대형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터널 산책을 즐길 수 있다.

